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재건 위해 총력”

850여년의 역사를 간직한 프랑스 파리의 상징이자 최대 명소 중 한 곳인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로 지붕과 첨탑이 무너졌다.

16일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0분쯤 파리 구도심 센 강변의 시테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의 첨탑 쪽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길의 솟구쳤다. 경찰은 즉각 대성당 주변의 관광객과 시민들을 대피시켰고, 소방대가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화염에 휩싸인 노트르담 대성당 주변의 다리에 모여든 인파는 이날 저녁 7시50분쯤 대성당 첨탑의 끝부분이 불길 속으로 떨어지는 장면을 목격하자 일제히 “오, 신이시여”라는 비명을 터뜨렸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현장에서 아직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고 검찰이 화재 원인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화재 원인은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방화보다는 실화에 무게를 두고 있다. 파리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가 잠정적으로 리노베이션(개보수) 작업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그동안 600만 유로(약 78억 원)를 들여 첨탑 리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소방관들은 가장 귀중한 유물들이 있는 건물 뒤쪽을 보호하는 데도 투입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슬픔이 우리 국민을 뒤흔든 것을 알지만 오늘 나는 희망을 말하고 싶다”며 “대성당의 화재 피해 수습과 재건을 위해 전 국민적 모금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화재가 발생한 뒤 조기 진화에 실패, 피해가 크게 발생한 것은 노트르담 대성당이 12세기에 건축된 건물로, 내부 장식품이 대부분 목조로 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163년 공사를 시작해 1345년 축성식을 열었던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은 파리의 구도심 시테섬 동쪽에 있는 성당으로, 프랑스 고딕 양식 건축물의 대표작이다.

네덜란드 유명꽃시장 마지막 꽃집 문닫아

세계 유일의 ‘수상 꽃시장’으로 이름을 알린 암스테르담 싱켈꽃시장(Bloemenmarkt)을 가더라도 이제 꽃집은 볼 수 없게 됐다.

밀려오는 관광객에 사업 유지가 불가능해지면서 마지막 꽃집마저 문을 닫았다.

1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싱켈꽃시장 내 마지막 꽃집을 운영하던 마이클 사일루스는 이를 전 가게 문을 완전히 닫았다. 1943년부터 같은 장소에서 이어 온 사업이었지만 최근 사업 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사일루스는 “가게에 들어 온 관광객들이 사진 찍기에만 몰두하면서 기존의 고객들에게 꽃을 판매하기가 어려워졌다.”면서 “내 사업을 망치는 관광객들에게 질려 버렸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밀려오는 관광객들이 물건은 사지 않은 채 사진만 찍는 가운데, 네덜란드 현지인들은 한적한 꽃집을 찾아 떠나면서 더 이상 싱켈꽃시장에서 꽃을 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사일루스는 이에 싱켈꽃시장을 떠나 본래 위치에서 750m 떨어진 곳에서 꽃집을 다시 열기로 했다.

1862년 설립된 싱켈꽃시장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세계적인 관광지다. 200년 가까이 생화를 주로 판매했지만 10년 전부터 취급품이 바뀌었다. 싱켈꽃시장 내 위치한 총 16개의 가판에서는 나막신, 자석, 대마 나무, 나무·플라스틱 조화, 구근 등이 팔리고 있다. 안 팔리는 생화 대신 관광객 수요에 맞춰 기념품 위주로 판매하게 된 것이다.

지난해에 암스테르담을 찾은 관광객은 1,900만명이다. 2025년에는 2,300만명으로 될 전망이다. 반면 암스테르담 인구는 총 85만명으로, 이들은 밀려오는 관광객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거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현지인들이 도리어 밀려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의 부동산 투기 자본도 암스테르담에 뛰어들면서 지난 5년 간 집값은 연 평균 10% 가까이 올랐다. 대마초와 흥등가를 찾아 온 관광객들의 소란으로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 관광객 위주의 상업 및 음식점이 많아지면서 정작 현지인들이 갈 곳은 없어지는 상황이다.

멕시코 대통령 “부정부패·범죄조직 환수금 국민에게 돌려줄 것”

멕시코가 부정부패에 연루된 공직자나 마약 범죄조직 등으로부터 환수한 모든 자산을 국민 복지에 사용하는 기관을 세운다.

16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암로) 대통령은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암로 대통령은 “(암수·몰수한) 귀금속이나 자동차 또는 농장 등을 처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며 그중에는 행방을 알 수 없게 되는 것들도 있다.”면서도 “로빈 후드와 같은 기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로빈 후드는 중세 잉글랜드의 전설적인 의적이다.

또 암로 대통령은 새로운 조직을 통해 검찰 당국이 마약 범죄조직과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 등으로부터 압수한 다양한 자산을 매각해 학교나 병원 등을 건설

하고 운영하는 등 자금 이용 방안도 설명했다. 기관의 설립 시기나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암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취임하자마자 대통령 전용기를 매각한 뒤 이코노미석을 이용하고 대통령 궁궐은 국민들에게 개방하는 등 소박한 정부의 모습을 보이며 과격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하지만 취임 100일이 지난 현재 멕시코의 각종 경제 지표들이 급락하고 있어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는 서구 선진사회처럼 능력에 따른 기회가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아 ‘희망의 사다리’가 거의 없는 국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세계은행이 집계한 멕시코의 절대 빈곤 인구는 전체의 약 40%에 달한다. 부와 권력의 대물림이 가능한 멕시코에서 영세민 가정에서 태어나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빈곤에서 벗어날 확률이 희박하다.

타운뉴스 업소록

“리스팅 신청하세요!”

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

Phone: _____ Fax: _____

업소명(한글): _____ 주소: _____

(영문):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업종: _____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곧 수록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계약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Tel: 714.530.1367 / Fax: 714.530.6473
11501 Brookhurst St. #202., Garden Grove, CA 92840

townnewsusa.com

